



LPG업계 주요 이슈

한국LPG가스공업협회

- ↑ LPG 국제 가격 900달러 육박
- ← LPG차종 소비자선택권 갈증 해소
- ↓ 전세계 LPG소비량 0.9% 증가
- 프로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
- ↑ 현대車, 2008년 LPI 1톤 트럭 양산
- ← 동절기 따른 프로판·부탄 혼합 본격화

LPG 국제 가격 900달러 육박

사우디 아람코사 12월 CP 프로판 860달러, 부탄 885달러로 결정

LPG 국제가격이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LPG수입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람코사는 유가 급등을 이유로 12월 국내 선적 가격을 프로판, 부탄 각각 톤당 130달러씩 인상한 860달러와 885달러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LPG가격이 3개월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CP 프로판 480달러, 부탄 495달러에 비해서는 1년새 79%가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LPG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12월 CP 인상폭이 예상을 웃도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내수 시장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특히 11월초까지만 해도 하향세를 보였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LPG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에 따라 2008년 1월 LPG가격이 사상 최고가 출발이 예고된 것이다. [석유가스신문 11-28]



LPG차종 소비자선택권 갈증 해소

내년 스타렉스, 레조 후속 등 출시계획 경차를 비롯 경승합차, 상용차도 대기

선택차종이 부족해 보급에 한계를 겪고 있는 LPG차량이 향후에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보여 LPG차량의 인기몰이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LPG모델을 비롯해 GM대우도 레조 후속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8년내 LPI 1톤 트럭 양산화를 목표로 현재 기술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어 LPG차종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산타페 LPG모델은 고급 SUV시장에서 LPG연료의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부족해 실제로 출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기가스 기준이 변경돼 생산이 중단됐던 경승합차 다마스과 경트럭 라보도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최근 매듭지어진 LPG경차의 경우도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GM대우, 기아자동차 등에서 기술개발을 마치면 늦어도 2009년 하반기에는 신차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와 한국기계연구원,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회사 등이 참여한 4.5톤 상용차 기술개발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처럼 LPG자동차의 신차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LPG자동차가 저공해성을 비롯해 연료의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반인이 선택할 수 있는 LPG차량은 기아차의 카렌스와 카니발, LPG엔진개조 차량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에서 이처럼 LPG차량이 확대 출시될 경우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의 LPG자동차 기술력과 시장규모가 세계 1위 수준인데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해당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가스신문 11-29]





전세계 LPG소비량 0.9% 증가

가정·상업용 정제, 수송용은 6% 증가

지난해 전세계 LPG소비량은 2억1,845만6,000톤으로 2005년 2억1,640만7,000톤에 비해 0.9%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LPG협회에서 집계한 LPG통계에 따르면 대륙별 LPG소비는 중동지역이 지난해 1,460만3,000톤으로 2005년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의 소비 증가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이 4,033만6,000톤으로 2.7%, 아프리카 대륙은 968만1,000톤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은 7,238만9,000톤으로 2005년(7,149만5,000톤) 대비 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북미지역은 지난해 5,471만5,000톤으로 2005년 5,603만6,000톤에 비해 2.5% 감소현상을 보였다.

용도별 LPG소비현황에 따르면 LPG자동차 등 수송용 부문은 1,920만6,000톤으로 2005년 1,806만9,000톤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정·상업용 시장은 정제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으며 산업용 시장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출입 등을 통해 전세계의 내수용 LPG는 1억531만7,000톤으로 전체 LPG 사용량의 48.2%를 차지했고 석유화학용이 24%, 정제과정이 4.8%, 수송용이 8.8%, 산업용이 12.6%, 농업용(364만4,000톤)으로 1.7%를 차지했다.

2006년말 현재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LPG자동차는 1,236만2,000대로 2005년 1,127만6,000대에 비해 9.63%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터키, 호주, 폴란드, 독일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터키가 지난해 24%의 증가율을 기록해 보급률 측면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2005년 LPG차 보급률 1위를 기록했던 폴란드의 경우 통계 착오였던 것으로 조사돼 한국이 216만대의 LPG차로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스산업신문 11-27]

프로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

미국 PERC 연구결과 발표

프로판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LPG가 효율적인 대응책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The Propane&Education Research Council은 가솔린, 디젤, 중유와 에탄



올 등에 비해 탄소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Btu 당 GHG 배출이 약 70% 적다고 밝혔다.

또 프로판이 탄소배출 저감 이점이 있고 국내에서 약 90% 생산되기 때문에 프로판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수와 난방용에서도 연구결과는 프로판이 모든 다른연료에 비해 우월하지만 천연가스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동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형트럭(Light-duty Trucks)에서도 프로판을 연료로 사용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PERC 로이 윌 사장은 “프로판이 배출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는 연료”라며 “GHG 성분이 많은 함유된 가솔린, 디젤 등과 같은 전통 연료에서 프로판으로 대체될 경우 지금 당장 GHG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RC 연구결과로 보더라도 LPG를 가정·난방용, 또는 수송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발생 억제에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등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료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산업신문 11-26]

현대車, 2008년 LPi 1톤 트럭 양산

22~23일 개최된 ‘LPG車 워크숍’서 밝혀

자동차 제작사가 수도권내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토록 고시가 되는 한편 2009년 이후 하이브리드차 양산시 적용할 세제감면 등 보급지원방안이 마련중이어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한LPG산업환경협회(회장 정진성)가 주최한 ‘2007 LPG자동차 워크숍’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광칠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사무관은 ‘자동차 환경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하이브리드차를 9,700대 보급(대당 1,400~2,80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수소연료자동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만2,950대 시범보급(대당 3,000~5,000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자동차는 2016년경 양산체제가 갖춰진 이후 세금감면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까지 저공해 경유차 6,370대에 대해 대당 200~780만원의 지원으로 보급하며 천연가스자동차도 2만3,000대까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M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 박정률 실장은 ‘SULEV 대응 기체분사 극초저공해 LPG 제작차 개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핵심부품에 대한 디자인 제품 상용화가 필요하고 양산 차량 인증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대자동차 김성근 수석연구원은 ‘초저공해 수준 LPi 소형트럭 제작차 개발’이란 주



제발표를 통해 2008년 중으로 LPi 1톤트럭(봉고3)을 양산화할 계획이며 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경유차량 대비 경쟁력 있는 주행성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PG차의 다양화로 인해 경유와 휘발유에 편중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이 가능하지만 프로판 과도혼입 불량 LPG유통 근절을 비롯해 도심 진입시 혼잡통행료 면제, 수도권 정부기간의 LPG차량 의무구매, LPG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으로 제작차 구매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후 LPG트럭을 구매할 때 LPG엔진개조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강건용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는 ‘중소형 LPG상용차 개발현황’을 ‘정진성 LPG산업환경협회장은 2008 World LPG 포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관을 부탁했다. [가스산업신문 11-22]

동절기 따른 프로판·부탄 혼합 본격화

자동차충전소...부탄냉각 방지 위해 프로판 섞어

추운 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해 LPG자동차충전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에 프로판혼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캐비닛히터용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은 여름에는 프로판이 10mol% 이하, 부탄이 85mol% 이상이어야 하며 겨울용(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11월 및 4월은 여름용과 겨울용 모두 적용)은 프로판이 15~35mol%, 부탄이 60mol%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은 계절에 상관없이 90mol% 이상의 프로판이 혼합돼 있어야 하며 1회용 부탄캔의 경우 부탄이 85mol% 이상이다. 이같은 LPG품질기준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자동차 충전소에서는 프로판을 15~35mol%까지 혼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이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는 것은 자동차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부탄의 비점이 -0.5℃로 겨울철에는 가스가 얼어 기화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점이 낮은 프로판(비점 -42도)을 혼합해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LPG품질위반자에게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품질 위반자에 대한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11-19]